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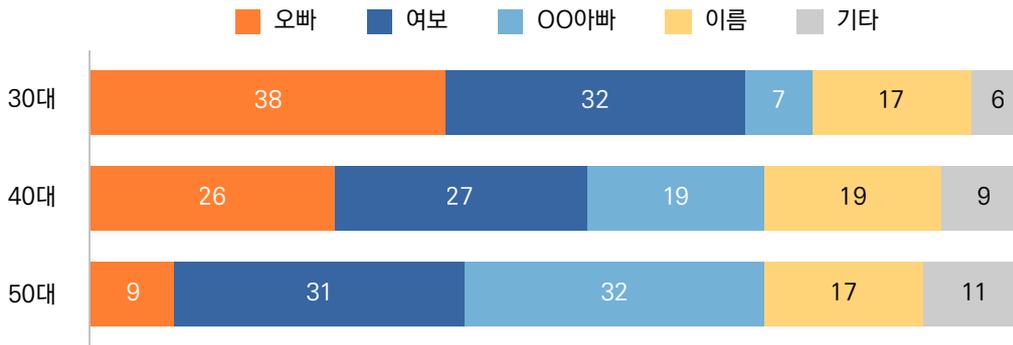


[부부간 호칭에 대한 인식]

남편 부를 때, 30대: 오빠, 40대: 오빠/여보, 50대: 여보/○○아빠

- 부부간 호칭은 가정마다 각기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변해왔다. 오늘날, 결혼한 이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? 이런 부부간 호칭에 대한 30~50대 기혼남녀의 인식(조선일보)을 살펴본다.
- 먼저 남편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기혼 여성에게 물었더니 30대는 '오빠(38%)'를 가장 많이 부르고 있고, 40대는 '오빠'와 '여보'를 비슷하게, 50대는 '여보'와 '○○아빠'를 비슷하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'오빠'로 부르는 경우는 30대 38%, 40대 26%, 50대 9%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.

[그림] 남편에 대한 호칭 (30~50대 여성 기혼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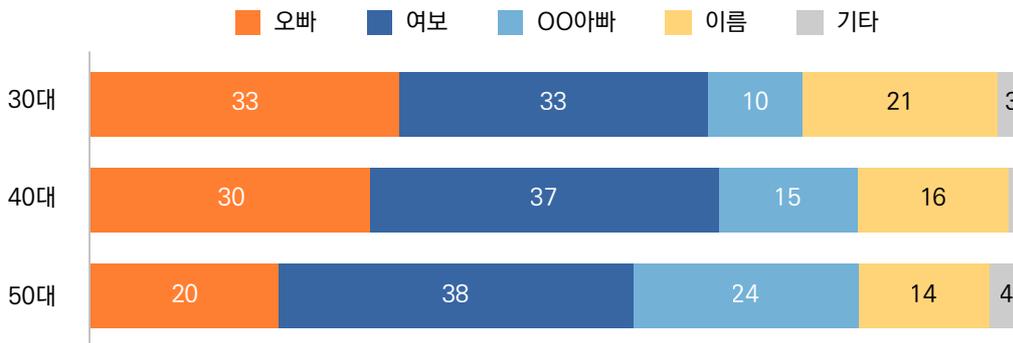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: 조선일보, '산부인과 대기실에서 "오빠"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' 기사 참조, 2024.10.28.(SM C&C 플랫폼 '탈리언 프로', 30~50대 기혼남녀 1603명, 온라인 조사, 2024.10.19.~20.)

50대 기혼남성, 5명 중 1명은 '오빠' 호칭 선호!

- 이번에는 아내가 어떻게 부를 때 편안한지를 기혼 남성에게 물었다. 그 결과, 30대에서는 '오빠'와 '여보'를 비슷하게 선호했고, 40~50대 연령대에서는 '여보'라는 호칭이 가장 높았다.
-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기혼 여성 중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비율이 50대는 9%로 매우 낮는데 남편들은 50대의 20%가 오빠로 불리는 게 편하다고 응답해 실제 불리는 호칭과 원하는 호칭 간 차이를 보인 것이다.

[그림] 남편이 선호하는 호칭 (30~50대 남성 기혼자)



※출처: 조선일보, '산부인과 대기실에서 "오빠"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' 기사 참조, 2024.10.28.(SM C&C 플랫폼 '탈리언 프로', 30~50대 기혼남녀 1603명, 온라인 조사, 2024.10.19.~20.)